

## 축복과 성공의 비결은 사랑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단지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산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집이 조금 더 컸으면, 삶이 좀 더 윤택했으면, 공부를 더 잘 했으면, 직장이 좀 더 좋았으면, 사장이 되었으면, 더 나은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등등과 같이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오직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만 바라보며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자기중심적인 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 한다."

"이 세상은 나의 세상이야."

"나는 나의 맘대로 살아도 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누가 싫어하든 말든 난 할 거야."

"나는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을 마땅한 존재야."

"사람들이 나를 원한다면, 나를 인정해 준다면, 나를 존경해 준다면.."

"다른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아도 나는 그 사랑을 받아야 해."

"다른 사람은 못 살아도 난 잘 살아야 해."

"다른 사람이 아프건 불구이건 죽든 말든 나와 내 가족만 아니면 돼."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사상으로 인하여 나만의 만족을 이루려는 삶은 이기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잘못된 일도 남이 보지 않으면 서슴지 않게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남을 짓밟고 올라서더라도 그 일을 하게 되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나의 경쟁상대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짓밟히거나 삶의 난관에 부딪치면 좌절하게 되고, 화를 내며, 나는 왜 안 될까? 라는 어두운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꿈들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의 허무함이 드러나게 되면 더 좋아 보이고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이루어야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가며 피곤한 생활을 지속하게 됩니다.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순환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앓게도 하며 자살 또는 방탕한 삶에 빠지게도 합니다.

실제로 마이클 펠프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수영선수는 자신이 출전했던 올림픽에서 18개의 금메달을 땀던 영웅입니다. 하지만 그는 수영을 그만 둔 이후에 도박, 마약, 파티 등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모조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에 빠져 자살 시도를 몇 번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의 조언에 따라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을 읽게 되었고 그 후 그는 자신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삶의 목적을 바꾸어 다시 수영 연습에 매진하여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서 32세 고령자로서 또 다시 많은 금메달을 획득하여 자신의 나라에 공헌하는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당연한 것이라 여길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 그분의 뜻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삶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할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는 내가 뜻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목적을 위하여

만드셨기에, 그분께서 나를 태초부터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살게 되면 나의 삶 모든 것이 기쁘게 되고, 축복을 받고, 평안함과 만족감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 몸과 마음을 바치면 존경스러운 애국자로 칭찬 받는 것처럼 자신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잠시 떠나 돈을 벌기 위하여 어느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자리를 빌려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의사소통이 분명치 않아서 저는 그 정비소에서 자리를 주는 줄 알고 착각하여 매일 가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 저는 상과 컴퓨터를 차려놓고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고, 세 번째 날에 가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저에게 아주 의아한 듯이 "당신 지금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 여기에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었나요?" 물었으며 순간 당황한 저는 제 자신이 그의 말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창피함이 몰려와 황급히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챙겨서 무엇을 잘못된 사람마냥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는 거기서 돈 버는 일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 지금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가 한 이 말이 내 마음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주인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는 놈이 정신이 없어서 돈을 벌려고 나왔구나!' 저는 제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열왕기상 19:9, 13) 가짜 선지자 400명을 목 베어 버린 아합 왕이 그를 죽이려고 찾는다는 소식을 들은 후, 엘리야는 도망쳤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주님께서서는 두 번이나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은 인간적인 행동, 돈이 적다는 이유로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돈을 벌기로 나선 저에게 주님께서서는 '너희는 왜 두려워하여 지시하지 않은 일을 하느냐?'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때에는 삶이 정말 험악하고 힘들며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사명대로 살 때에는 마음이 편안하고 오히려 즐겁습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을 안다면 이 길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요 쓸데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로 살기를 원하시고, 두번째로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사는 것, 즉 사람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과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진정한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으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복이 따라다닙니다.

다시 말해,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헌신적으로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혼신을 다하여 일할 때 나의 삶의 희락과 성공이 오며 그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후하게 주는 혼은 기쁨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잠 11:25)

심는 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법칙 즉,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다 보니 내가 도움을 많이 받게 되고, 내가 남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노력하니 나에게도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가르쳤더니 내게 지식과 방법들이 깨달아지고, 내가 남에게 많이 베풀었더니 나에게도 많은 부가 주어지고, 내가 남에게 좋은 것, 도움 되는 것, 불량품이 아닌 것을 만들려고 노력했더니 나의 회사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더니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내가 사랑을 많이 부어주었더니 많은 자에게 알려지고 돕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됨은 이 사랑의 진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남을 돕고 싶고 아픈 자를 안쓰러운 마음으로 치유해주고 싶어서 주님께 기도하였더니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마귀, 귀신들로부터 해방시켜주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 능력이 더 임하고, 그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공부하다

보니 박사가 되는 것처럼 도울 힘과 지식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주시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사람이 일에만 집착하여 삶이 부유해지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에는 스트레스, 공허함, 병, 죽음 등이 삶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무의미한 것이요, 남을 지켜주지 않는 삶은 나중에 나도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복음 15:9-13 KLB) 주님께서서는 몸소 자기의 목숨을 바쳐 자기와 상관없는 모든 자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이를 보여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명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와 상관없는 너희의 이웃을 위하여 살아라.’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내 이웃은 내가 아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요한복음 15:17 KLB)

그렇다면 무엇이 사랑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고린도전서 13:4-7 KLB)

진정한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챙겨주고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나의 먹을 것, 입을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을 헌신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며, 인도해줄 수 있으면 인도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의미는 아는 사람이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면 그에게 사랑의 충고를

해주고 그의 잘못된 발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며 그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을 때에 용기를 북돋아 주고, 상심하고 있을 때에 함께 울어주며, 험난한 길을 갈 때에 힘이 되어주는 삶,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어릴 적 딸이 많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버림받아 삼촌 집에서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촌들의 눈치를 보고 구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곳곳이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며, 돈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남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베풀기를 잘 하였고, TV에서 불우이웃방송을 보게 되면 방송국에 전화를 하여 그 불우이웃들에게 돈을 보내주곤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안 좋게 행동한 사촌동생들에게도 필요할 때 돈으로 도와주곤 했으며, 자신을 버린 부모님께도 찾아가 용돈을 드리며 도와드렸더니 계속해서 좋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와 그녀를 도와주고 사업을 인도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선한 성품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고 모른 채하기도 하고, 십억 정도의 돈을 두 번 빌려준 후 사기를 당했지만, 계속되는 축복에 부유함은 유지되었고 또 예수님도 믿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여 넘치게 부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 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눅 6:38)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남을 확인시켜주는 간증입니다.

무엇이든 사랑을 목표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좋은 것을 만들어 판매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왜 열심히 하는가? 그 목적의 끝이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은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직장, 건강, 행복, 돈, 명예, 가족, 친구, 사람과의 관계, 세상 모든 것을 100% 주관하고 계십니다. 무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우연이란 절대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세상은 주님의 법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마귀들이 속여서 잘못 선택하게 하여 악을 심게 하거나 항상 우리를 죄짓게 하고 넘어뜨리고 못살게 하며 유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큰 악한 길로 걸게 되어 세상이 이처럼 어지럽고 망쳐진 것이지 절대 우연으로 인한 결과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을 풀고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합니다.

이 첫 단추, 즉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5)

이것을 언뜻 보면 ‘그냥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인 마음은 ‘Lebab’ (라 바브)이고, ‘내 안의 사람’, 또는 ‘나의 뜻’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혼은 ‘Nephesh’(네페시)라는 단어로 ‘나의 혼’, ‘나의 생각’, ‘욕구’, ‘갈망’, ‘기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힘은 “M@ od” (meh-ode, 메 오드)라는 단어로 그냥 “힘”이 아닌 ‘필요 이상의 힘’, ‘넘치도록 초과하는 힘’을 뜻합니다.

힘이라는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만 보면 더 큰 의미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 힘” 을 쓰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 힘을 써가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남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에게 미쳤다”라는 비난의 소리만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혼 (Nephesh) 즉 ‘우리의 모든 생각들 속에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생각하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든지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은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항상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6 이 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7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네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8너는 또 그것들을 네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고 네 눈 사이에 두어 이마의 표로 삼으며

9또 네 집의 기둥과 네 문에 기록할지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 빠져서 사로잡히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보이는 곳곳마다 걸어놓고, 일어날 때도, 누워 자러할 때에도 주님을 계속해서 생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시도 빼놓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과 나누며, 항상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마음속에도 써놓고, 완전히 말씀에 세뇌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되는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3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주} 네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네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바로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 빠져서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법은 곧 우리가 잘되고 복 받고 행복이 넘치게 하려 함이란 것을 알아야합니다. 어느 아버지이든 자식이 안되기 바래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복 받고 모든 일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나를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고 모든 생각 속에 나와 함께하며 나를 항상 사랑하라. 또 넘쳐나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첫째, 말씀을 매일 상고하면서 열심히 읽고 이해하려고 힘쓰며 둘째,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크게 부르짖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셋째, 주님의 말씀을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일어나거나 항상 기회를 찾아서 남에게 전하려고 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이는 벽면마다 말씀을 가득히 채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믿음이 항상 강하게 지속됐다는 간증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보면 핍박이나 시험이 오고, 분명히 누군가가 “당신은 예수에게 미쳤다!” 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내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 주님께 정말 미치지 않으면 가장 큰 첫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15)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고, 우리를 항상 섬기고 계시며, 불타오르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힘도 없고 못생긴 마귀의 존재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신명기 10:17 ) 이 세상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시고 세상의 시작과 끝이신 분,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는 당연히 죽도록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약속을 믿고 지키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것과 약속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